

KIA 타이거즈 2008 납 회 식



KIA 타이거즈가 16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2008 구단 납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투수 윤석민은 구단에서 선정한 최우수선수상을 받았고, 이범석과 이용규는 각각 우수 투수상과 우수 타자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외야수 김원섭은 모범선수상, 투수 임준혁은 기량발전상, 칸베 투수코치는 우수 지도자상을 받았으며, 내야수 김선빈은 광주·전남사 진기자회(회장 김태규)가 뽑은 '올해의 포토팀'에 선정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KIA 윤석민 “내년 MVP 도전”

구단 선정 '최우수 선수' 영예 “올림픽대표 합류 가장 기뻐”



‘팜볼’까지 장작했다. 150km가 넘는 강속구에 커브, 슬라이더 체인 지업까지 두루 갖춘 윤석민은 지난 7월9일 한화와의 홈경기에 처음으로 연마했던 팜볼을 선보였다. 첫 상대는 2006년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윤석민에 홈런을 뽑아내며 KIA의 가을잔치를 끝낸 ‘천적’ 이범호. 이범호를 삼진으로 돌려세웠던 윤석민의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내년 캠프를 위한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민의 2008년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지난 8월의 베이징 올림픽이었다. 올림픽은 올 시즌 윤석민에게 가장 아픈 기억이자 또 가장 극적인 기쁨이었다. “올림픽 최종엔트리에서 탈락한 다음

날 사직마운드에 섰던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 (조범현)감독님이 경기를 하루 쉬는 게 어떠냐고 하셨지만 팀이 4강을 다투는 상황이었고, 개인적으로 아픈 티를 내기 싫어서 예정대로 등판을 강행했다” 가장 힘든 경기를 치른 이날 윤석민은 롯데 타선을 7이닝 동안 1실점으로 막고 승리투수가 됐다. 뒤늦게 태극마크를 달던 순간은 최고의 순간이었다. 대표팀 합류 소식을 듣고 윤석민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머물던 호텔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을 만큼 기뻐했다고 회고했다. 가장 멋진 한 해였다. 윤석민에게 아직 욕심이 남았다. 내년에는 김광현에게 내주었던 MVP를 거머쥐는 게 윤석민의 소원이다. “올 시즌 10승 이상 방어율 10위권을 목표로 했던 만큼 기대 이상의 한 해를 보냈지만, 김광현보다 한 단계 올라가고 싶다. 느낌이 좋다” 올 시즌 KIA 타이거즈의 ‘보석’으로 빛난 윤석민의 얼굴이 유난히 환해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불운의 에이스에서 KIA 간판 에이스로’ 프로야구 2008 시즌 ‘방어율왕’을 차지한 윤석민(사진)을 따라 다니는 수석이다. 16일 광주 신양파크 호텔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의 2008 납회식에서 윤석민은 구단이 선정한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안으면서 풍성한 올 시즌을 마감했다. 윤석민은 “최고의 한 해”라는 말로 자신의 4번째 시즌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3.78의 방어율로 7승 18패를 기록하며 ‘불운의 에이스’라는 별명을 얻었던 윤석민은 올 시즌 2.33의 방어율로 지난해 승수의 두 배인 14승을 챙기며 다승 2위에 올랐다. 지난해 18패는 올해 5패로

줄었다. SK 김광현에 밀려 ‘황금장갑’의 꿈은 다음으로 미뤄지만 값진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한 데 이어, 구단이 선정한 최우수 선수에 오르며 가슴 뿌듯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와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운(運)’이라며 웃던 윤석민은 “게임운영 능력과 위기 대처능력이 좋아졌다”고 자평했다. 18패의 쓴 경험이 윤석민을 성숙하게 했다. 농익은 변화구를 통한 다양한 볼 배합과 매서워진 볼 끝도 몰라보게 달라진 2008년의 윤석민을 만들었다. 4년 동안 성장을 거듭한 윤석민은 올 시

박찬호 필라델피아 간다

1년간 최대 500만 달러



박찬호(사진)가 내년 시즌 활약하게 될 미국 프로야구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올 시즌 제1선발로 활약했던 투수 제임스 모이어와 재계약하기로 해 선발경쟁이 뜨거워졌다. 좌완 모이어는 앞으로 2년간 필라델피아에서 더 뛰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이 16일(한국시간) 전했다. 올해 46세인 모이어는 올 시즌 33번 선발등판해 팀내 최다승인 16승7패에 평균자책점 3.71을 기록했다. 모이어가 재계약함으로써 올 시즌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필라델피아는 4명의 선발투수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월드시리즈 우승팀 필라델피아와 1년간 최대 50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밝힌 박찬호는 스프링캠프에서 5선발 자리를 놓고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박찬호는 지난 15일 “필라델피아에서 250만달러를 보장받고 선발투수로 뛰었을 때 출장 경기수(11~27경기)와 투구 이닝(170이닝)에 따라 각각 보너스를 챙겨 최대 500만달러까지 받는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다저스와 마이너리그 계약하면서 받았던 연봉 50만달러에 10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어 “구원투수로 뛰면 30경기부터 75경기까지 5경기마다 2만달러씩 보너스가 생겨 300만불 이상은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여자배구 한국도로공사-현대건설의 경기에서 현대건설 이우리(위)가 도로공사 이보람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3-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KBO 새 총재 유영구씨 추대

신상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16일 사퇴 의사를 밝히자마자 후임 총재가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8개 구단 사장들은 이날 신상우 KBO 총재가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 비공개 회의를 갖고 18일 이사회를 개최해 유영구(62·사진) 명지료재단 이사장을 제17대 KBO 총재로 공식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응용 삼성, 조남홍 KIA, 이강석 히어로즈 사장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후임 총재 인선에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구규약에 따르면 총재는 이사회에서 4분의 3이상의 동의로 추천해 구단주 총회에서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목 명시돼 있지만 8개구단이 뜻을 모은 사안이 총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영구 이사장이 KBO 총재직을 수락하게 되면 2012년 3월까지 3년여 동안 야구계 수장으로서 프로야구를 관장하게 된다. 경기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유영구 KBO 총재 후보는 명지학원 이사장과 한국대학법

인협회 부회장 등 오랜 기간 교육계에서 활동했지만 체육계와도 끈끈한 인연을 맺어왔다. 1990년 LG 트윈스 창단 당시 고문을 맡았던 유 이사장은 2003년에는 KBO 고문과 서울특별시야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평소 야구계 인사들과도 폭넓은 교류를 가졌다. 또 유 이사장은 1993년 대한체육회 이사로 선임된 뒤 2005년부터는 부회장을 맡고 있다. KBO는 1982년 출범 이후 12-14대를 맡았던 박용우 총재를 제외하면 모두 정치인 출신이 총재를 맡았지만 교육계 인사가 프로야구 수장으로 추대된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마쓰자카 슌지

마쓰자카·스즈키 등 해외파 7명 내년 WBC 일본 대표팀 후보에

일본이 미국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7명을 포함해 내년 3월 제2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 출전할 후보 선수 34명을 발표했다. 일본 언론은 16일 인터넷에서 하라 다쓰노리 감독이 이끄는 일본 WBC 대표팀이 전날 최고의 선수를 모아 최강팀을 구성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들 중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마쓰자카 다이세이(보스턴), 구로다 히로키(LA 다저스), 사이토 다카시(전 다저스·이상 투수), 이와무라 아키노리(텍사스·내야수), 조지마 겐지(시애틀·포수), 슌지 이치로(시애틀), 후쿠모토 고스케(시카고 컵스·이상 외야수) 등 7명이다. 투수가 16명, 포수 4명, 내야수와 외야수가 각각 8명과 6명씩이다. 이들 중 6명이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한다. 관심을 끄는 건 투수진이다. 16명 중 각 구단에서 선발로 뛰는 선수가 12명으로 투수수 제한이 있는 WBC에서 선발 투수의 계투자로서는 캠프 자리를 방어하겠다는 복안이다. /연합뉴스

광주일고 정성철·진흥고 정형식 ‘우수 선수상’

2008 광주 야구인의 밤

광주제일고의 허세환 감독과 진흥고 최재영 감독이 16일 광주 센트럴시티 웨딩홀에서 광주시야구협회(회장 김우현) 주최로 열린 ‘2008 야구인의 밤’에서 우수 감독상을 수상했다. 허세환 감독은 올해 제61회 황금사자에서 팀의 네 번째 대회 우승을 이끌었고, 최

영 감독은 제 60회 화랑대기에서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호남팀 우승의 쾌거를 이루었다. 또 황금사자 MVP로 KIA 타이거즈 1차 지명을 받은 투수 정성철(광주일고)과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게된 화랑기 최우수선수 정형식(진흥고·외야수)은 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조·중등부에서는 수창초 나길남 감독과 화정초 박태범 감독이 우수 감독상을 받았

고, KIA 타이거즈 김조호 단장과 (주)성은건기 서민호 대표는 공로상을 수상했다. ▲우수 감독상=허세환(광주일고)·최재영(진흥고)·나길남(수창초)·박태범(화정초) ▲우수선수상=정성철(광주일고)·정형식(진흥고)·김영민(수창초)·최승훈(화정초) ▲우수 타격상=손명기·김태형(이상 광주일고)·이진호(동성중)·송준희(무등중)·김민현(대성초)·한두술(수창초) ▲심판상=이현우(광주시야구협회 심판위원) ▲장학생 수상자=전승현(진흥고)·선진원(동성중)·김재현(서립초)·박세도(광주일고)·양현웅(진흥중)·이두호(송정동초)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1 팀코리아, 모터스포츠 10대 뉴스 선정

자동차경주 국가대항전인 A1 그랑프리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고 있는 A1 팀코리아가 공식 블로그에서 네티즌과 함께 국내 모터스포츠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1 팀코리아 운영사인 ㈜굿이엠지는 “A1 팀코리아 황진우가 2008-2009 시즌 개막전에서 7위에 오른 내용이 톱 뉴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A1 팀코리아 창단 및 첫 출전

▲국내 경주대회인 CJ슈퍼레이스에서 배기량 6천cc 스톱카 등장 ▲황진우의 국내 첫 일본 슈퍼GT 진출 ▲LG전자의 포틀러 윈(F1) 메인 스폰서 계약 ▲F3 대회 2010년부터 영암에서 개최 ▲서울 도심에 F1 차량이 선을 보인 F1 시티 쇼크 행사 ▲국내 모터스포츠 TV 중계 확대 ▲자동차 업체들의 모터스포츠 진출 러시 ▲박정용과 이재우 등 노장 선수들의 국내의 대회 우승이 10대 뉴스로 꼽혔다. /연합뉴스